

문화

■광주 무각사서 사진전 여는 박노해 시인

약자의 시선으로 퍽박받는 현장 담아  
마음의 고향 광주서 전시하고 싶었다

‘나 거기에 그들처럼’전 30일까지

“언어의 국경을 넘는 순간 시는 소용 없었습니다. 분쟁의 현장엔 카메라가 더 유효했죠. 약자의 입장에서 퍽박받는 현장을 담아야했고, 강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카메라로 그들을 감시해야 했기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함평출신 노동운동가 시인 박노해(53)씨가 2일 광주 서구 치평동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열리는 ‘나 거기에 그들처럼’전 개막식 참석 차 광주를 찾았다. 10년만이다.

“이곳은 예전 상무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80년 5월 내 동지도 여러 죽었죠. 서울 전시회 이후 여러 곳에서 순회전시회 제의가 있었지만, 의미있는 곳에서 첫 전시회를 가져야겠다는 마음에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80년 5월 광주의 마지막 밤이 생각나 오기 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씨는 “광주는 항상 첫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의지를 갖게하는 마음의 고향”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에서 아침에 전투기 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우리가 마주치는 분단의 현실임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이들과 놀고 꿈꾸고 사랑하는 것이 마치 얇은 철관 위에서 지속되는 것과 같아요.”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한 후 1998년 출소한 박씨는 낡은 필름 카메라를 메고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을 돌며 분쟁으로 고통받는 빈곤한 이웃을 찾았다.

“무너진 집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진심을 알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폭격이 쏟아지고 나서도 삶을 지속하는 모습에서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폭격이 중단되면 아이들과 공을 찾고, 다시 폭격이 시작되면 숨어 있다 검은 차도르를 입은 여인에게 이끌려 파괴된 집을 보고 가슴으로 울었다.

그는 이어 “친구가 된 그들을 찾아갈 때 퍽박받는 인화해 가는데 폭격으로 숨겨 영정사진이 되곤 했다”며 “혈육처럼 스며들어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마치 동네 사진가와도 같았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년간 쌓아 온 민주주의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전쟁의 위기로 치닫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이뤘던 첫 마음으로 분열과 대립과 상처를 회복하고 남북의 교류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박씨는 지난 10월 11년만에 출간한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그간 시 쓰기도 멈추지 않았다는 박씨는 “이시대 젊은이들은 시장사회로부터 영혼의 테러를 당해 존재감마저 사라지고 있다”며 “희망도 없고 어른도 없는 시대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거대한 악에 대한 저항과 절규의 목소리를 담아 시집을 썼다”고 말했다.

“사진이든 시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빛과 언어로 모든 것을 담아 영혼의 만년설산이 빛나는 것처럼 희망과 인류애를 노래할 것입니다.”

광주 전시회가 끝나면 박씨는 다시 분쟁의 현장으로 날아간다. 그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씨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이념의 재생과 삶의 방식의 문제, 사회 체제 문제를 다룬 책도 집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열리며 수익금은 가난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평화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30일 오후 6시30분에는 작가와와의 대화도 갖는다. 문의 062-383-010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판굿’

미술관에 음악이 흐른다. 흥겨운 설장고 가락에 어깨가 들썩인다.

미술관이 전시 공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진화중이다. 한걸음에 음악도 듣고, 전시도 감상할 수 있으니 바쁜 이들에게는 일석이조다.

4일(오후 6시) 담양읍에 자리한 ‘아트센터 다담’에서는 ‘방석 음악회’가 열린다. 전시실 갤러리에 의자를 놓는 대신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방석’을 깔았다.

‘내 삶의 끝자락을 지키고 싶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음악회의 초대 손님은 가수 이동원이다. 그는 ‘향수’, ‘가을편지’, ‘이별 노래’ 등 감성 짙은 노래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1만원을 내면 차와 음식을 함께 나누고 음악회를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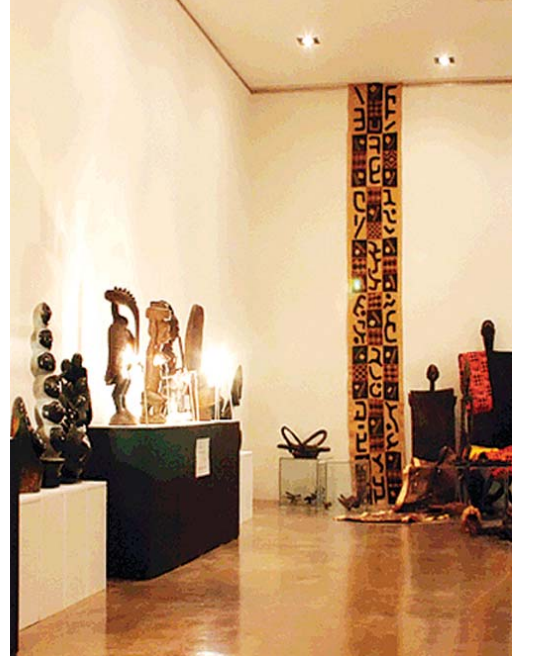
마침 미술관에서는 국제미술제 아프리카 특별전 ‘꿈꾸는 검은 유혹’전이 열리고 있다. 이 전시에서는 아프리카 유물을 비롯해 소나조각, 공예, 회화 등 300여점이 선보인다.

작품보고 음악듣고  
흥겨운 미술관

‘담양 아트센터 다담’ 가수 이동원 공연

‘광주시립미술관’서는 15일 송년음악회

‘고흥 남포미술관’ 김덕수 사물놀이패



‘꿈꾸는 검은 유혹’전

펼쳐진다.

오는 6일 오후 6시 열리는 ‘꿈꾸는 문화열차-김덕수의 전통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사물놀이 창시자 김덕수가 이끄는 (사)사물놀이 한울림(이하 한울림)이 무대에 오른다. 한울림은 (歌)·무(舞)·악(樂)은 물론 각종 전통 놀이까지 한데 아우르는 종합예술단이다.

본격적인 놀이관에 앞서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하는 ‘문?’으로 시작을 알리며 경기, 충청도와 호남, 그리고 영남지방 삼도에서 명성을 날리던 장고 명인들의 가락을 모아 사물놀이로 정리한 ‘삼도설 장고가락’을 들려준다.

또한 영남, 호남, 중부 세 지역의 농악(풍물)가락을 새롭게 엮어 연주하는 ‘삼도농악가락’과 사물놀이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판굿’을 펼쳐 보인다. 관람료 무료.

미술관에서는 오승윤·김대성·서기문·씨 등 미술관 소장작품전이 열리고 있다.

문의 061-832-0003.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수달의 출현...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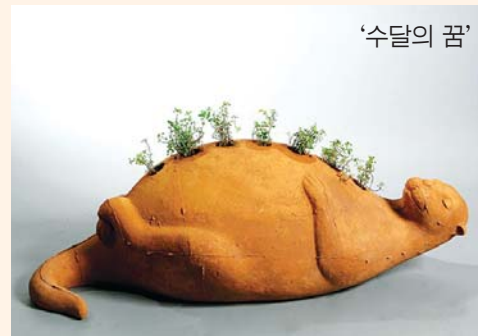
박정용전 9일까지 롯데화랑

돌, 나무, 철 등을 재료로 인간의 몸을 빚어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는 조각가 박정용씨가 오는 9일까지 광주 롯데화랑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박씨는 ‘From the hand’를 주제로 수달을 소재로 한 아기자기한 조각을 선사한다.

‘수달의 꿈’은 편안하게 누워있는 수달의 배위에 새끼가 자라는 모습을 흙으로 빚은 작품이며, ‘생명의 파장’은 정교하게 묘사된 수달이 물 표면에 파장을 일으키는 장면을 포착했다.

또 철사로 수달의 뼈대만을 만든 ‘부화를 꿈꾸다’와 나무를 이어 붙여 만든 ‘기억의 나이트’ 등



‘수달의 꿈’



‘ctrl+z’

의 작품도 눈여겨 볼 만하다.

그는 “현실이 규범과 약속에 의해 잘 짜여진 옷이라면, 수달의 출현으로 씨줄과 날줄을 형클어서 예기치 않은 당혹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담았다”고 말했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경희대 대학원을 나온 뒤

6차례 개인전을 열고, 푸른휴전 등 수십차례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을 받았고, 현재 한국조각가협회와 전국조각가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LG전자** 시스템 에어컨(주) 특관부

**난방비 절감, 등유대비 70%이상 놀라운 절약률!!**

LG 히센시스템이 설치 및 애프터 서비스 유지관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 설치장소**

- 공장시설
- 업무시설
- 교육시설
- 숙박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 장점**

- 절전형 고효율 인버터 콤프레서
- 친환경 냉매
- 하이드로 키트채택

바닥 난방, 급탕이 필요한 병원, 기숙사, 리조트 등 다양한 건물에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LG전자** 시스템 에어컨(주) 특관부 **진영설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528-10번지

TEL. 062-953-2371 · 061-727-2371 · 019-624-2371

**명품시계 전남/북 총판**

A/S는 유명백화점 갤러리어클락 매장과 공유됩니다.

**갤러리어클락 광주점**

TEL. 062 233 2251

광주 동구 충장로2가 25-1번지 (학생회관 후문 다이소 옆)

\* 본 매장은 정품만을 취급합니다.  
\* 명품시계 취급점 모집

CITIZEN, TechnoMarine, FENDI, TIMEX, Salvatore Ferragamo, BOSS  
Paul Smith WATCH, CELINE, COACH, NIXON, AIGNER, D&G